

■ (언론 동향) 2022.8.9. “농수축산신문” 보도

○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내년에도 이뤄져야

올해 실시된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내년에도 이어져야 농가는 물론 소비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농협은 올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했다. 지난해 20kg 한 포대에 1만 원 전후면 구매할 수 있던 요소 비료값이 올해는 3만 원에 육박하는 등 무기질비료 가격이 2배 이상 뛰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쟁쟁해진 무기질비료 가격에 대한 농가의 하소연이 지속되고 가격 부담에 무기질비료 구매를 포기하거나 줄이는 일이 자주 벌어졌다.

실제 한국비료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무기질비료 농업용 출하량은 76만9000톤으로 지난해 동기 79만2000톤과 비교해 2.9%가 감소했다.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가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상분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부담이 컸던 만큼 양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기질비료 인상분을 100% 보전해 주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당분간 무기질비료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현장에서는 내년도 무기질비료 구매비용 부담에 대한 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 중국의 요소수출 제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축에 따른 유럽의 암모니아 생산 감소 등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무기질비료 국제원자재가격은 높게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최근 농가의 비료 생산 지원금을 2배 가량 늘렸으며, 일본 역시 정부차원의 비료가격 지원을 공식화하는 등 국제원자재가격 수급 불안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내 무기질 비료업계에서도 올해 정부가 시행한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과 원료 구입자금 무이자 지원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국민의 먹거리 안보와 식량주권 유지를 위해 무기질비료가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한태 기자>

○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 내년도 비료가격도 상승예상...정부지원 '절실'

올해 상반기 무기질비료 농업용 출하량은 76만9000톤으로 전년 동기 79만2000톤에 비해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비료협회는 이 같은 출하량 감소가 농가 비용 부담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며 지속적인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국제 무역분쟁, 코로나19, 중국 비료 수출제한 등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가 비축 수요가 증가, 무기질비료 출하량이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상반기에는 비료 가격이 워낙 급등해 정부의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에도 농가 부담이 크게 늘어나며 출하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종별로는 요소와 일반복비 출하량은 늘었지만 맞춤형 비료, 원예용 등 기타비료 출하량은 감소했다.

주로 논농사에 사용되는 요소는 상반기 11만2000톤이 출하돼 전년 동기 대비 9.8%, 논·밭작물에 고루 사용되는 일반복비는 11만3000톤이 출하돼 0.9% 증가했다.

반면 맞춤형 비료는 같은 기간 9만7000톤이 출하돼 전년 대비 16.4%가 감소했으며 2011년 이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원예용 등 기타비료도 42만 톤으로 전년 대비 2.8% 줄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상반기 무기질비료 국제 원자재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96~137%, 2020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202~251% 상승하는 등 뚜렷한 가격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부 원자재는 향후에도 급격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정부 지원사업 연장 추진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요소의 관세청 평균 통관 가격은 톤당 868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7.2% 인상됐으며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축으로 인한 유럽 암모니아 생산 영향 우려로 향후 가격 급등이 전망되고 있다.

염화칼륨도 상반기 톤당 63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3.6% 상승했다. 인산이암모늄은 전년 동기 대비 가격이 95.5% 상승해 톤당 948달러를 기록했으며 중국 수출 할당량 시스템 적용, 내년 1~4월 수출 전면 중단 전망 등으로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운영될 한국비료협회 전무는 “세계 비료가격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국내 비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재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농가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과 원료구입자금 비료업계 무이자 지원이 내년에도 계속 시행되기를 정부 당국에 강력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문예 기자>